

광주시-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확산 힘 모은다

AI·데이터 등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공공서비스 개발 앞장 강기정 시장 “긴밀한 협업체제로 모범적 지역특화 협력모델 기대”

광주시와 정부가 디지털 분야 지역특화 협력모델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고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상호 연계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지방행정공공시스템 및 지방 공공기관 통합업무플랫폼 구축 ▲지역 디지털플랫폼정부 협의체 구성·운영 ▲디지털플랫폼 정책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의 지역특화 선도과제로 국가AI데이터센터 활용 AI기반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AI-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서 선진 기반시설(인프라)과 산업생태계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와 정부는 국가AI데이터센터 및 기반시설(인프라)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AI 초개인화 서비스 실증',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고객센터(AICC) 실증모델 구축',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호남권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 알림체계(보이스봇) 개발' 등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개발·지원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AI·데이터 등 혁신기술 활용이 필수인데,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서비스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AI데이터센터 등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 확산과 광주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를 꿈꾸는 광주에도 큰 힘이 될 듯하다"면서 "긴밀한 협업체제를 갖춰 디지털 분야의 모범적인 지역특화 협력모델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 책과 함께 시작해요”

시립도서관, 20일부터 책 꾸러미 무상 배부 등 '북스타트' 운영

광주시립도서관은 "20일부터 책 꾸러미를 무상 배부하고 책 놀이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북 스타트(Book Start)'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북 스타트(Book Start)는 1992년 영국에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아 시작된 운동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대표적인 문화 운동으로 꼽힌다.

광주시립도서관은 책 꾸러미 가방, 도서 2권, 가이드북 등 책 꾸러미를 무상 배부하며, 광주에 거주하는 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호자 신분증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해 각 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선착순 수령이 가능하다.

책 놀이 프로그램은 4세부터 초등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야 놀자, 꼬물꼬물 책놀이, 체험형 동화구연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 신청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오는 4월 11일에는 임영주 부모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도 연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책과 함께하는 내일이 빛나는 평생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부모에게도 육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을 참고하거나 각 도서관 어린이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설현장 안전, 市안전보건지킴이가 맡는다”

연말까지 재해 예방 활동 나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홍보도

광주시 안전보건지킴이가 지역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산재 취약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산업안전분야의 경력을 가진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월까지 ▲광주시·자치구 발주공사 및 민간공사 현장 지도·점검 ▲제조업 등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원인인 추락예방 안전조치 확인 등 현장 수칙 등도 중점 점검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불시 순회 점검과 연계해 개선조치 불량 현장 개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보건지킴이들은 앞서 지난 13·14일 사전교육도 수료했다.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광주지역 산재 취약 사업장을 발굴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



광주시 안전보건지킴이들이 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과 산재 취약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겠다"면서 "특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을 강화해서

민 안전의식 개선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이 지역 소방기관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공감 프로그램 진행 중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소방안전본부, 소통·공감 소방행정 호응

22일까지 5개 소방서·소방학교 등서 정책 공유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산하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소통·공감의 소방행정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김문용 본부장은 지난 11일 동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5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지역 소방기관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소방서비스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다

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 11일 동부소방서 행정 업무 부서와 현장출동 부서를 찾아 세대·계급 간 격의 없는 공감의 장을 형성하고 서로 존중·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소방기관 직원들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은 광주 소방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축·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 강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장균 등 11종 359균주 대상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가축 및 반려동물 유래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한다.

올해는 12월까지 가축과 반려동물에서 분리된 대장균, 장알균 등 총 11종 359균주를 분리해 항생제 내성검사를 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균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 공중보건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동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의 항생제 내성균 출현이 사람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어 관

리가 시급하다는 게 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다행히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가축과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에선 문제가 되는 다제내성균이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과 동물병원원에 내원한 반려동물에서 유래한 지표세균과 병원성세균을 분리 동정한 후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